

# 지스트-전남대학교병원 협력연구 심포지엄 개최

- 2012년부터 11년간 총 37개 과제 수행...확고한 연구협력 시스템 구축
- 신경세포 재생, 항균 펩타이드, 혈액학센서패치 등 다양한 주제의 융합연구 발표



▲ 지스트가 전남대학교병원과 함께 지난 12월 '협력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가 전남대학교병원과 함께 지난 12월 '협력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지스트 연구처와 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이 공동 기획한 이번 심포지엄은 각 기관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2월 7일(수)에 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스트 박기홍 연구처장, 박지용 기획처장, 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김재민 연구원장, 기승정 중개의학연구센터장이 좌장으로 참석했으며, 양 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을 비롯한 총 70여명의 연구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지스트 연구처와 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은 지난 2020년 공동 공모를 통해 발굴한 16개의 협력연구과제에 4년간 총 22억 원(연간 5.5억 원)을 투자해 융합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양 기관이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회로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을 대표해 지스트 박기홍 연구처장, 전남대학교병원 김재민 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1, 2부로 나누어 8개의 협력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발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됐다.



▲ 지스트-전남대학교병원 협력연구 심포지엄 현장

발표된 연구과제는 ▲ 파킨슨병 동물모델에서 사람치수줄기세포 분비체를 이용한 대뇌 기저핵 도파민 신경세포 재생 연구 ▲ 항균 펩티드의 다약제 내성 패혈증 임상 균주 및 감염병 동물모델 효능 평가 ▲ 병원 밖 응급환자 모니터링을 위한 피부초밀착혈역학센서패치 개발 ▲ 뇌졸중 환자의 하지 재활 훈련을 위한 비침습적 뇌&촉각 전기 자극 통합플랫폼 개발 ▲ 스마트 산화그래핀 수송체를 이용한 항섬유화 약제의 신장-특이적 전달 및 신장질환 진행 제어기술 개발 ▲ 흑색종 진단을 위한 LIBS 기술 개발 ▲ 후각신경구 광자극을 통한 신경퇴행질환 비침습적 치료법 개발 및 검증 ▲ 당뇨병성 심혈관합병증 모니터링을 위한 웨어러블 생체신호 감지 센서 개발 등이 소개됐다.

2012년부터 시작된 지스트-전남대학교병원 협력연구는 **지난 11년간 총 37개의 연구를 수행했고, 이는 두 대학의 공동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협력 연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2020년 공동 공모를 통해 첫 발굴한 8개 과제(연구기간: 2020~2021년)는 2년간의 연구수행 종료 후 SCI 논문 17편, 특허 출원·등록 12건, 시작품 1건, 학술대회발표 10건 등 괄목할만한 우수한 협업 성과를 이루었다.

박기홍 연구처장은 "본 협력연구 사업은 양 기관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